

# 친환경 양봉과 벌꿀 등급제를 보면서

(사)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지회장 이 성 배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W.T.O다 F.T.A다 하여 총, 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양봉 업계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이 양봉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양봉인들이 벌꿀 등급제만 시행하면 지금 국내 벌꿀이 당장 정화가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화 될 수 있는지 여러 양봉인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나열하여 봅니다.

첫째 :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탄소동위원소 검사방법과 탄비로는 절대로 등급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얼마든지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방을 할 수 없는 과학적인 양봉이라야 만이 등급제가 가능 합니다. 선진 유럽과 같이 벌꿀 1되에 효소(미생물)가 얼마만큼 살아있는가 하는 등의 과학적인 검사방법이 도입되어야 등급제가 실효성을 거두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우리가 사용하는 동위원소 검사방법은 선진국에서는 그 어떤 곳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과학적인 검사방법을 도입하여 (예로) 벌꿀1되에 효소가(살아있는 미생물) 100마리이면 1등급, 50마리이면 2등급, 30마리이면 3등급, 이하는 등의품으로 식품 공장이나 또는 화공약품 공장으로 납품을 한다면 비로소 벌꿀 등급제가 제 위치를 차지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과학 양봉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채밀 후 벌꿀 관리를 잘못하면 효소가 파괴되어 2등급 또는 3등급이 됩니다. 이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자조금을 이용한 경비로 홍보도 하고 소비자 보호단체에 벌꿀 교육을 한다면 비로소 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 벌꿀의 정의를 재 적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벌꿀의 정의를 보면 벌이 꽃에 가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꽃 꿀만 꿀이라는 즉 화밀만 꿀이 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의 기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도 아열대성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 밀원인 아까시아꿀은 서서히 우리 주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감로 꿀이 풍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럽과 같이 감로 꿀도 벌꿀로 적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잣나무(침엽수)에서 나는 감로 꿀이 제일 비싸고 다음이 단풍나무 감로 꿀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밀도 벌꿀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고 보여 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밀이 벌꿀로 적립 되었을 때 전국토를 밀원화 할 수 있습니다.

양봉협회에서는 바쁘게 서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진행 시켜 나가더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선진유럽과 같이 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따라 첫째는 목제용, 두번째는 수밀이 많은 나무를 선정하여 심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후배 양봉인들에게 존경 받는 협회가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과 같이 화밀만 고집한다면 밀원 자원 부족으로 저급 한 봉산물만 생산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양봉산물만 생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유럽 벌꿀의 정의를 보면 화밀, 수밀, 초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고를 쓰는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우리도 초밀을 벌꿀로 인정 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효소가 적은 초밀 즉, 미생물이 적은 잡화는 등의품으로 가공 식품 공장이나 화학 공장으로 납품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과학 양봉과 벌꿀 등급제가 이루어지리라 보여 집니다.

과학 양봉 등급제로 봉산물의 고급화를 하면 자연적으로 초밀 생산이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점차 체계적으로 소비자에게 과학 양봉 벌꿀 등급제를 홍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 WTO가 처음 시작 될 당시고 관세율에만 의존하지 말고 협회, 학회, 조합, 업계 모두가 합심하여 친환경 양봉으로 방향을 잡아 노력을 하였더라면 지금쯤이면 우리나라의 양봉업계도 선진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 갈 수 있었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들이 가져오는 물건과 앞으로 수입되는 벌꿀이 무관세가 되더라도 식품 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읍니다. 우리 양봉인들이 입으로만 친환경양봉을 부르짖지 말고 솔선 수범하여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과 알지도 못하는 농약사용을 중지하고 선진 유럽의 친 환경 양봉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조건에 맞는 친 환경 양봉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례발표 및 교육으로 전 양봉산업에 확대 보급시켜 궁극적으로 국내 양봉산물을 친 환경 양봉산물로 생산토록 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는 친 환경양봉산물에 대한 제품 규격은 물론 양봉에서 사용 가능한 약제에 대한 규정을 제정, 실시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봉산물과 품질 면으로 당당히 경쟁 하면서 봉산물의 가격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양봉인의 수익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친환경 양봉 외에는 살아날 대안이 없으며 그러하지 못 할 경우 우리 양봉 산업은 후퇴 또는 몰락 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양봉관련 농업부분(화분매개)에 있어서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추산되지 못 할 정도로 큼니다. 이는 곧 양봉의 몰락은 농업부분의 비용절감은 물론 소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늦다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산업을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 작성자 : 한국 양봉협회 울산광역시 지회장 이 성 배  
 울산 친환경 양봉 연구회장(전국회원100여명)  
 도 진흥원 및 시, 군, 기술센터 양봉작목반등 60여 곳 교육

